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예수사랑 큰잔치 심령부흥회 개최

오는 10월 11~15일까지,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도 함께

기간중 10월 8일(금)은 전교인 금식일로

강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대표, 수원침례교회 담임)

교회는 10월 17일 예수사랑 큰잔치와 때를 맞추어 오는 10월 11일(화)부터 15일(금)까지 심령부흥회를 열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을마다 부흥회를 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계기를 가져온 부흥회는 금년에도 예수사랑 큰잔치 앞 주간에 실시하여 전 교인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 목표와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게 되었다.

강사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대표, 수원침례교회 담임)로 새벽기도회와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여 온 교회가 영적 각성과 심령의 부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바라고 있다.

- 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
- ②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③ 강사 김장환 목사를 위해서
- ④ 예수사랑 큰잔치의 성공을 위해서

- ⑤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을 위해서
- ⑥ 전 교인의 참석을 위해서
- ⑦ 좋은 일기 주시기를 위해서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저녁부흥회는 오후 7시에 시작된다.

'93 장애인 복음화대회 개최

10월 19~21일, 충현교회당에서
주님 모르는 장애인 많이 참석토록 유도
민박 봉사자 자원을 기대

1993년 장애인 복음화대회가 지난 1991년에 이어 두번째로 오는 10월 19~21일 충현교회에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1)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 복음화 2) 자원봉사자와

사역자 훈련 3) 지역교회의 장애인 선교의식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주제로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삼았다. 이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장애인들의 축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늘 복음도 받고 사랑도 받아 온 장애인의 모습(Receiver)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 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 주는 자(Giver)로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요한 특징을 갖고자 한다.

또한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장애인들을 우선 참가시키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것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성도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올바른 장애인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의 가정을 개방하는 민박봉사자를 신청받고 있다. 특히 이 대회를 후원해 주시는 충현교회 성도들(각 여전도회 지회와 교회 인근에 사시는 성도 가정)의 적극적인 민박 봉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본 대회에 주 강사로 개회예배 설교 및 오전 및 저녁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장애인대회 준비본부는 참가예상인원을 대회는 1,000명(봉사자 500명 포함), 밀알의 밤은 3,000명으로 잡고 있다.

19일 저녁에는 "자유가 있는 인생무대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KBS기독교 신우회 성우들과 밀알 단원들이 중심으로 아름다운 장애인 선교 내용을 담은 밀알의 밤도 펼쳐진다.

금주(9월 27일~10월 3일)의 주요 행사

1. 교역자·장로 양육교육

- 일시 : 1993. 10. 4, 5일 오후 7시~10시
- 강사 : 이 용 남 목사 (장석교회)

2. 구역일꾼 특별교육

- 일시 : 1993. 10. 6(수) 수요일 부 예배후
- 장소 : 본당
- 강사 : 신성종 목사
- 대상 : 구역일꾼 전원

3. 교역자·장로 기도회

- 일시 : 1993. 10. 6(수) 수요일 부 예배후
- 장소 : 베다니홀



예수사랑 큰잔치 헌신예배 교회는 지난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예수사랑 큰잔치 헌신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할 것을 마음으로 결정하였다. 이날 헌신예배에는 대만에서 온 복음성가 그룹 '헤브리 멜로디'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다.

1. 영생의 조건

(1)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즉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기를 갈망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출발점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마치 노획물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시며 그의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하시며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보니 아무리 힘써도 안되고 애를 써도 안되니까 '아이고 주님 안됩니다. 내가 해보니 안됩니다. 힘써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청년이 다시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여섯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되는구나,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을 해도 안되는구나.'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동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3)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가 이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온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는데도 마음속에 구원 받을 것이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정말 율법들을 지켰느냐' 하면서 다섯 가지 율법을 예로 드니까 '예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 외에 재가 또 무엇이 부족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청년은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청년에게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한번 테스트 해보아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네가 정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주는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청

충현강단



부자와 구원

(마 19:16-29)



신성종

<목사·당회장>

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4) 부자 청년의 잘못된 점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부자 청년의 잘못된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못 섬깁니다. 하나님 재일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말은 나에게 속한 것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 재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청년도 율법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하나님, 한편에는 재물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만 안지으면 되는 것이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의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이 청년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이 손은 기도하는 입술보다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부자와 천국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자는 구원을 못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찢겠도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됩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돈이 못 가져다 줍니다. 영생, 돈이 못 가져다 줍니다. 사랑도, 믿음도 못가져다 줍니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육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황금만능주의에 빠집니다. 셋째 부자들은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하고 병원에도 안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이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을 못살게 굴니다. 건강하고 스테미너가 넘치면 돌아다니면서 외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 받을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경주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경주자는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입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옷을 입어서 달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의미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지켜서 탐욕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노획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무엇을 해서 얻는다면 항상 나는 불충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확신이 안생깁니다. 밤낮 구원이 의심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세 가지의 착각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선행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아시며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며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도록 위탁해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물

레

우리 민족만큼 눈물이 많은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성이 많은 민족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메달라기도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눈물이 메달랐다는 것은 사랑도 인정도 메달라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시력이 감퇴되어 사물을 잘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잘 보이기 때문이다. 렌즈로서는 미국의 팔머철성대의 200인치나 되는 렌즈가 단언 큰 것에 속한다. 이것을 통해서 별들을 관측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별은 오직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글 / 신성종 목사

□ 군전도회의 활동에 참가해 보니 □

‘60만 국군을 그리스도께로’

배 춘 식

〈집사, 제7교구〉



충현교회 군전도회가 군복음화를 위해 발족되어 초창기에 김재명 장로를 비롯 여러 분들이 뜻을 모아 서서히 불이 붙어 지금은 470명의 회원을 확보, 성장하고 있다. 군전도회는 임성한 지도 목사님과 많은 장로들이 동참하여 군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응집된 전도회다. 군전도회에서는 오래전 계획을 세워 해군 0함대 소속 제 00부대를 방문하기로 하고 군중 하사관도 없는 불모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가 회원을 확보하였다.

드디어 김재명, 최대원, 박영식, 강협, 김여순, 이동수 장로와 105명의 회원이 9월 13일 6시 30분에 교회를 출발, 묵호항에서 쾌속정 뱃길을 타고 울릉도에 도착했다. 현지 답사를 위해 박상준 집사팀이 3미터의 파고에 고생을 하기도 했다. 현지에 도착한 회원은 8시에 부대 영내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터덜대는 시내 버스에 분승 20키로의 속력으로 힘들게 고개길로 달렸다.

김재명 장로 사회로 찬송 495장을 부르고 최대원 장로의 기도와 찬양팀 특송후 열왕기하 6장 14~17절 말씀을 통해 임성한 목사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성경이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과 국가를 사랑하라'는 설교가 있었다. 예배에는 장병 115명, 서문교인 22명, 충현교인 105명 등 240명이 참여했다. 예배후 부대장의 인사

말과 준비한 위문품 전달식이 끝난후 회원들은 여기 저기서 이슬비 전도를 위해 장병들의 주소를 적느라 열심이다. 묵호 항구에서 0함대 장병에게 위문품을 전했다. 0함대를 통해 러시아에 보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군전도회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제 00 부대 장병은 3교대로 24시간 바다를 지킨다. 산 꼭대기에서는 최첨단 레이더로 바다를 지키고 해변 근접지역에서는 씨치라이트가 해변을 감시한다. 초소마다 근접 방어를 하는 수병들. 외롭고 고된 군생활에 말씀과 찬양 기도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함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14일 예배후 하루의 일정이 하달되고 여러 곳을 탐방하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멍' 울릉도는 984미터 성인봉을 중심으로 용암석 섬이다. 도동에 모든 행정 관청이 있고 산은 험준하고 길은 좁다. 하나님은 이곳에 축복을 주셨다. 도독,

집승, 공해가 없는 삼부를 자랑하는 섬이다. 동서 남북 어디를 가도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볼로 녹이시고 아름다움을 펼치신 곳이다. 일본의 외침을 통해 이조때 사람을 살게하여 현재는 유동인구를 합해 15,000이 상주한다고 한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시어 36개의 교회가 있다니 감탄할 일이다. 청색 바다와 아름다운 형상들, 천부동 수력발전소는 땅에서 솟아오른 세계

유일의 지하수 발전소이며, 산과 바다 어디를 가도 황금알이 쏟아진다.

'군부대에 교회를 세우자' 교회가 많지만 영내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다. 충현 군전도회는 부대에 교회를 개척함에 힘쓰고 기도해야 한다.

19:00시에 서문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다. 박영식 장로의 간절한 기도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누구인가' 제목의 여호와를 의지하지는 권면의 말씀에 은혜가 넘쳤다. 예배후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선물 전달 순서와 충현교회에 감사함을 표하는 임정현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15일 돌아 올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주신 교회와 사랑을 주신 서문교회 성도님, 음지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전후방에서 방문을 요청하나 힘이 부족하니 성도님의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서 찾아온 청년 ○

잊혀져가는 증기 기관차의 향수에 젖어 본다. 칙칙뚱뚱하고 레일 위를 달리던 괴물은 '빠' 하고 요란한 기적소리를 내기도하고 손을 흔들어서 여러 손이 나와 춤추기도 하였다.

좀더 세차게 달리기 위해서 기관차는 연신 화구로 석탄을 퍼넣었고 그러면 점점 빨리 달리던 기관차가 생각이 난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배당 로비에 소복히 진열하면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이 없어져 버리곤 하던 것이 몇번이던가. 우리 교회는 세차게 달리기 위해 그

리스도의 편지를 연신 먹어 대고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가버려진다.

그 시간 예배당 뜰에 한 청년이 서서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들려져 있었고, 이런 편지를 보내준 차 안에서 만난 자매를 만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발신이 충현교회로 되어 있어서 찾아주지 못하였지만 그는 아쉬움을 갖고 3부예배에 안내된 후 명함을 주고 떠나 버렸다. 추수의 즐거움은 누구의 것인가?

황영일(집사, 충현전도대)

누에고치

하기전도,
주인 배 세우기에
정신없이 바쁘던 나날
영혼의 살을 벗어냈었지
헛나루 이과리에 목을 걸고
열심히 열심히 갈아먹으면
환한 웃음 꽃을
먹은 만큼 소유했을 줄 알았지
석 켜를 자고 나서 눈 떠보니
세상이 실연적 고독의 실을 얹어
혼자만의 꿈을 지었지

스스로 감한 교만에
스스로 묻고 온 죽음
열릴 때는 새생명이
아름다운 배를 타고 나올 수 있었지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모라
세상이 되어있었다
빛을 내리는
은총의 날개도 달았지



- 원미은 '수목화' 4부 중에서 -

베드로전도회 체육대회(족구)

양재시민공원에서 열려

우승은 19지회가, 준우승은 16지회가 차지

베드로 남전도회 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베드로 전도회 체육대회가 지난 9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450여명의 많은 베드로 전도회 회원 부부가 참여한 가운데 양재시민 공원 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예배 후, 23개 지회 선수입장, 개회선

언, 선수선서 및 족구경기에 들어가 준결승전까지는 15점 세트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선수는 남 5명 여 1명으로 구성되어서 열린 경기와 응원전을 펼친 결과 우승(당회장 배)은 19지회가, 준우승(전도위원장배)은 16지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토막소식

- ◆ 양아부는 영아부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테이프를 제작했다. 또한 찬양부르기 대회를 각 반별로 실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한편 10월을 학생대심방의 달로 정하고 모든 학생을 심방할 계획이다.
- ◆ 유치부는 연말을 대비해서 심방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모든 사항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로 하고 심방후의 후속처리를 각 반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 ◆ 초등2부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교육관 311호에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교사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 ◆ 중등2부로 오늘 작음음악회로 모인다.

전도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모이는 이 음악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지하 2층 마르다홀에서 모인다.

◆ 소망부는 오늘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갖는다. 4개반을 묶어 1개조로하여 대회를 가진다.

◆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박경열 집사가 소장하고 있던 컴퓨터 1대를 사랑부에 기증하였다. 기증품은 Trigem 286AT, Printer (LQ 1550HT) 1대. 한편 동기증품을 사용하게 될 사랑부에서는 교사는 물론 전학생의 학적관리는 물론 교육성과를 개인별로 기록유지하여 더 좋은 지도와 교육에 열심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어 앞으로 사랑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작성 및 시행에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불붙여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9월 27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 신성종 목사님 : 9월 27일(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2.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10월 17일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강권하여 데려 올 태신자를 정하여 주의 사랑을 베풀며 힘써 전도하게 하소서.
4.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낙심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 이제 21일

-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서 움추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작전상 후퇴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급할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오직 전진을 할 뿐입니다. 예수사랑큰잔치를 위한 준비가 몇 달 전부터 시작될 때는 약간의 여유도 있고 융통성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이제 21일 남은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이론이나 방법을 전수하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전도 또 전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야겠다는 결심에는 체면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개칭

교회는 그동안 전도대상자의 접촉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던 '사랑의 편지'를 4신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로 개칭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편지형식도 현재의 엽서형식에서 카드 형식으로 바꾸어 1면은 그림, 2면에는 성경구절, 3면에는 편지글을 신기로 했다. 따라서 4신부터는 새로 제작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활용해야 한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도합시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알게된 사람들뿐 아니라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의 이름을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추석선물로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합시다.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연휴를 즐기며 가족을 찾느라 바빠서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선용하면 전도에 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전화 카드를 선물로 사용하여 전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추석 선물로 사용하여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전도지를 활용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가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되 전도지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를 한 장씩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의 편지함에 전달하는 방법, 주차된 자동차 유리에 끼워두는 방법,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방법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제작된 전도지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스터를 대문에 붙이거나 게시판에 붙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듯이 열심을 다하는 자가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새 신자들로 넘치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 드리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력교구 확정

잔치 당일 주일 낮예배를 7부로 나누어 드림에 따라 각부 예배에 골고루 참석하여 특정시간대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부별 주력교구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 일뿐이다. 이는 그날 초청자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력교구는 다음과 같다.

예배시간 주력교구

1부 오전 5시	1~23교구 일꾼헌신예배
2부 오전 7시	1, 2, 3, 4, 19교구
3부 오전 9시	5, 6, 13교구, 교회학교
4부 오전 11시	7, 20, 23교구
5부 오후 1시	8, 9, 21교구
6부 오후 3시	10, 11, 12, 22교구
7부 오후 5시	14, 15, 16, 17, 18교구
8부 오후 7시	1~23교구 감사와 찬양예배

금주의 제직원 촬영계획

- 촬영교구 : 9월 19일 / 3교구, 4교구
9월 26일 / 5교구, 6교구
- 촬영시간 : • 주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예수사랑큰잔치를 위한 우리의 기도

21일 남은 예수사랑큰잔치를 앞에 두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 지게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게 하시고 핍박과 변명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있게 준비되는 예수 사랑 큰잔치가 되게하소서.

겉잡고 수줍은 성도들의 심령에 새힘을 허락하소서.
막혔던 입술이 열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리게 하소서

이번 예수사랑큰잔치를 통하여 인생이 변하며 찬양하며 뛰며 일어나는 역사와 주님의 일군이 부름받게 하소서, 뜨거운 가을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로 충만한 축복주소서

우리의 손을 뻗쳐서 주의 앞으로 이끌어 교회를 채우고
예수를 더 높이는 시간되게 하소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사랑 충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충현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축복을 주소서

2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불길들이 교구에 계속되게 하소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하소서

10월 4.5일 양일간 있을
교역자 장로 특별 양육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의 하실 이용남 목사님을 통하여 큰 유익이 있게 하소서,
등록된 세신자들을 잘 인도하는 방법이 찾아지게 하소서

10월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집회되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준비하는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높아지며 모든 일꾼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자세를 허락하소서

